

‘전기요금 엇박자’

김종갑, 적자 해소 위한 특례할인 폐지 등 밝혀 성윤모 장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곧장 반박

한국전력이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각종 전기료 할인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전이 매분기 이어지는 적자 부담에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인데 당장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는 정부의 방침과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1조1000억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특례 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

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다.

현재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 여러 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7월 “두부(전기)가 콩(석유)보다 싸졌다”고 발언하는 등 그동안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재차 시사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9285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상반기 기준 부채는 122조8995억원이다. 한전의 전기료 인상 계획안은 매 분기 이어지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직접

한전 사장 “개편해야” 산업부 장관 “부적절”

적인 전기료 인상 대신 할인 혜택을 없애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11월 말까지 필수 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새로운 요금체계를 내놓기로 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현행 누진제 1단계 구간 소비자에게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용도별 요금 원가 공개를 협의하고 있다”며 “야단을 맞더라도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특별심사에서 한전의 특례 할인 제도 폐지와 관련해 “특례 할인 일괄 폐지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성 장관은 이어 “요금체계 개편을 한전 측과 협의한 바 없고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례 할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

동구, 미로센터 내일 개관

광주 동구는 주민문화예술시설인 공동 ‘미로센터’ 개관식을 11월 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일환으로 지난 6월 준공된 ‘미로센터’는 예술의 거리 내 기존 4층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기존의 무등갤러리를 확장해 갤러리, 공연장, 라이브러리, 공방, 창작실, 교육·체험 공간, 카페 등을 갖췄다.

미로센터는 앞으로 ▲예술의 거리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관계성 회복 ▲예술의 거리 핵심구간 내 필요한 공공서비스디자인 ▲예술의 거리 조경환경 변화 ▲예술활동으로 ‘광주가치’를 트렌드에 맞게 계승하는 등 4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 제18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대상

광주 서구 금호1동이 제18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에서 대상을 거머쥘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에서 402건의 사례가 참여, 82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해 14개 읍면동의 우수사례가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에 진출한 14개 읍면동의 우수사례는 29일 최종 PT심사를 거쳤으며, 서구 금호1동의 ‘누구나 자치! 자치야 학교가자!’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500여명 건각들, 푸른길 공원에서 건강 뽐낸다

오는 11월 2일 광주 남구 푸른길 공원 일원에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건강 걷기대회가 열린다.

30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가 주최하고, 주월?효덕 주민건강위원회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푸른길 건강 걷기대회’가 오는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주월동 빅스포 뒤 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건강 걷기대회에는 관내 주민들 뿐만 아니라 푸른길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등 약 5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 걷기대회 코스는 약 3km 구간이다.

빅스포 광장에서 출발해 반환점인 동성고 앞을 지나 되돌아오는 코스이다.

“깊어지는 가을밤, 북구합창단 공연과 함께”

광주 북구가 11월 가을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음악공원에 주민들을 초대한다.

북구는 “오는 11월 4일 오후 7시부터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19회 북구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북구합창단은 ‘미리자 강변의 추억’, ‘타리타리’ 등 4곡을 시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운명의 여신’, ‘기적의 궁전’, ‘벨라’ 등 추억·연명·사랑이라는 소재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주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국경일 지휘자를 비롯한 반주자 조송은 씨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북구합창단 안무전문가 주자영 씨의 안무가 곁들여져 무대가 더욱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중기부 모범,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성과보고회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생의 “모범적 사례”로 소개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가, 11월 5일 평등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2019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광주 광산구와 호남대 주최, 기업주치의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성과보고회는, 지역 주도 경제정책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자리.

행사는 1부 ‘기업주치의센터 성과 보고회’와 2부 ‘대법원 무인민원발급기 개통 기념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기업주치의센터는, 이날 지역 산·학·연 관계자를 초청해, 한 해 동안의 컨설팅과 정책연계 등 자신들의 성과를 보고하고, 2020년 주요업무 계획도 공유한다.



3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경찰특공대가 테러에 대비한 다중이용시설 화재·화생방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실전 방불” 광주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테러로 인한 복합재난을 가정 한 훈련이 30일 광주에서 열렸다.

경찰청과 광주 북구청은 이날 광주 북구 오룡동 국립광주박물관에서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북구청, 소방본부, 31사단, 환경청 등 30개 기관 2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은 총기 인질 테러와 진압, 화학 가스누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피해수습 복구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훈련을 마친 뒤 “보여주기식 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 내용을 일부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훈련도 실전처럼 해야 한다”며 “유관기관이 호흡을 맞추며 유대감을 갖고 훈련에 임하는 것이 공동체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퇴임

내년 총선 출마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장이 3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과 동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퇴임식은 공로패 전달, 동료 직원 송별사,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부시장은 퇴임을 통해 “1년3개월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시의회 의원들과 언론인, 시민, 직원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민선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미래를 위해 일했던 지난 시간은 모든 문제의 해결점과 대안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부족한 역량을 발휘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부시장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 광주형



이용섭 광주시장이 30일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퇴임식에서 공로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의 정상궤도 안착, 광주문화관 건립 추진,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 등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출마를 준비한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험료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한국건강관리공단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